

고교학점제, 학부모와 소통의 장

17~30일, 14개 시군 예비 고교 학부모 대상 '고교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예비 고교 학부모(초5~중3)를 대상으로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0~2025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변화의 흐름을 안내하고, 자녀의 진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학부모와의 소통의 창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최대 70명 이내로 운영하고, 17일 무주

와 장수를 시작으로 18일 부안·익산, 19일 김제, 23일 완주·전주, 24일 남원, 25일 고창·정읍, 26일 진안·군산, 30일 순창·임실까지 총 14회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 담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뭐가 달라? ▲고교학점제 어떻게 진행되나? ▲질의 응답 ▲설문조사

등이다. 신청은 해당 사이트(<http://naver.me/5VuyWlqH>)에서 개별신청하거나 QR코드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2015 개정교육과정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예비 고교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JBNU 창업동아리 캠프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JBNU 창업동아리 캠프 및 유망기술 콘테스트'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최근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열린 JBNU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및 유망기술 콘테스트에 모두 18개 학부 및 대학원생 창업동아리가 참여했다.
이번 캠프는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 및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또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고자 준비했다.
캠프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벤치마크 고도화 및 손익분기점의 이해에 대한 강의에 이어 팀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멘토링이 진행됐다. 또한, 팀별 아이디어 발표를 통해 대학생 5팀 대학원생 5팀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행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JBNU 창업동아리 캠프 및 유망기술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전주대-고용노동부 공동 청년일자리정책 홍보행사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홍성덕)는 11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청년일자리정책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정책을 안내하고 평소 진로취업 상담을 받지 못한 재학생 및 지역 청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취업 서포터즈들과 함께 청년고용정책 OX 퀴즈 등을 통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이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이홍석 교수, 양자점 파장 제어 기술 개발

차세대 신개념 광소자 · 광시스템 연구에 활용될 듯

전북대학교 이홍석 교수(물리학과)와 박경덕 교수(울산과학기술원)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이 초미세 반도체 나노 입자로 알려진 양자점 소자 응용을 위한 '파장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자점 제작에 따른 변수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제작된 양자점의 유전반파 증착과 급속 열처리 과정을 통해 파장을 제어해 냈다.
이 파장 제어 기술은 양자점의 원소들과 장벽층의 원소들이 서로 섞이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공정 중에 발

생하는 결함이 적기 때문에 소자 제작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광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나노포토닉스(Nanophotonics, IF=7.491, 상위 6.7%)'에 게재됐다.
이홍석 교수는 "양자점의 파장을 제어하는 기술은 초고집적 나노 광전자 소자의 제작이 가능해져 차세대 신개념 광소자 및 광시스템 구현을 위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공저자로 전북대 물리학과 조덕용 교수와 이홍석 교수 연구실 졸업생인 두이 탄 대학(베트남)의 민민단 교수가 참여했다.
/정은성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사)전북행정발전연구원은 정책사업과 제도 개선 시안을 함께 연구하고, 인력지원과 학술정보를 교류하는 데 합의했다.

전주대 산학협력단-전북행정발전연구원 '지역발전 정책 연구' 협약 체결

전주대 산학협력단과 (사)전북행정발전연구원은 정책사업과 제도 개선 시안을 함께 연구하고, 인력지원과 학술정보를 교류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10일 전주대 대학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은 변주승 단장과 김동오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정책사업·제도개선 관련 공동 연구 협력, ▲우수한 인력지원의 상호지원 교류, ▲학술정보의 교류 등을 추진한다.
김동오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 실적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주대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변주승 산학협력단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서로 상생발전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협력 사업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전국 빅데이터 경진대회 성적 '우수'

전주대 학생들이 제1회 CDS 빅데이터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사진)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승교수)은 최근 전국 8개 대학(CDS 빅데이터 대학연합)과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제1회 CDS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빅데이터 우수 인력양성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대를 비롯해 대전대, 동아대, 연세대(미래캠퍼스), 제주대, 조선대, 한양대, 호서대 8개 빅데이터 대학연합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빅데이터 분석솔루션을 통해 생산 분야, 사회 분야의 빅데이터 중 한 개의 문제를 선택해 3시간 동안 분석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주대 학생들



모두 우수상(대학 총장상/3명)과 장려상(한국 IT비즈니스진흥회장상/5명)에 입상하며 4차산업과 빅데이터 교육의 성과를 입증했다.
주승 단장은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동아리를 신설하고 관련 분야 심층 교육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4차산업 혁명에 기반한 미래인재 양성과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